

## (3) ⑧진안할망① (성산면 수산리)

진안할망은 성담쏘곱에  
 할망을 놓안 성을 쌓난  
 진안할망이엥 흡네다.  
 옛날 고려적에  
 여배에서 여놈들이  
 주주 친입을 흐연  
 “성담을 둘르라” 훈디.  
 성담이 자꾸 물아지연,  
 흐로은 꿈에 산신이 나타나고  
 열시술된 처녀를  
 놓왕 담을 쌓민  
 좋기엔” 흐난  
 열시술 난 지집애기를  
 놓고, 성을 둘렀습네다.  
 그후로 성담은  
 잘 되였습네다.  
 단궐들이  
 흐는 이력이 부죽흐나  
 집안이 펜치 못흐민  
 이 할망안티 왕 빌민  
 펜안흡네다.

제일, 11월 14일 동지제  
 주손에 생기 맞은 날

<성산면 수산리 여무 49세 조옥순님>

민속원,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1991, pp.441-442,

## (3) ⑧진안할망② (성산면 수산리)

이 당은 옛적  
 이 모을에 성을 쌓고

진을 칠 때  
성담이 자꾸 물아지여.  
흐르은  
어떤 대서가 넘어가다가  
“열시술 된 처녀를 놓아,  
그 웃티 성담을 쌓민  
좋겠다”, 흐여,  
그영 흐였더니  
성담이 완고 흐여진  
할망이우다.  
므을에서 이 당이 강  
빌민,  
편안케 흐여주는  
진안할망이우다.

제일, 주손에 생기 맞은날,  
동지날.

<성산면 수산리 신자 33세 강유행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442.